

95. 3월

〈日 本〉

일본의 후지 전기는 유럽최대 종합전기메이커인 독일 지멘스와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가스터빈 복합발전 등 화력발전시스템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전개하기로 합의, 가와사키시에 富士 지멘스 에너지 시스템 추진본부를 신설 화력발전 분야에 본격 참여기로 했다.

〈國 內〉

정부는 산업계 수요위주의 전략적 개발지원분야 700여개를 도출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올부터 시행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95년도 1차 공업기반기술개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올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통산부는 우선 2천년대 우리의 산업기술개발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기 위해 산업계 수요 위주의 전략적 개발지원분야 700여개를 도출, 올 부터 5년간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소요재원 2조 2천억원은 재정경계원 등 관계 부처와 협의 해 공업기반기술 개발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美 國〉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는 중국과 영국에서 3억달러 규모의 발전설비 건설 및 정비용역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의 화력발

전소에 4기의 발전기를 건설키로 하는 2억달러 규모의 계약과 함께 잉글랜드 윌튼의 티스사이드 발전소에 장비 및 인력을 제공키로 하는 1억달러 상당의 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世 界〉

미국의 주른산업사는 계열사인 파워 시스템즈 그룹과 호주의 트랜스필드 테크놀로지스사가 설립한 합작기업이 호주 스미스필드에 건설될 9천2백만달러 규모의 1백 60mW급 천연가스 복합순환발전소 설계와 건설계약을 사이스 에너지스社로부터 수주했으며, 새로 건설될 발전소는 오는 4월에 착공해 '96년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中 國〉

중국은 전력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 1억5천만달러를 차입키로 하는 2개의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협정에 서명했다.

세계은행 보증에 의한 이 차관은 중국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浙江발전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2개의 차관에서 5천만달러는 일본엔화로 나머지는 美달러화로 제공된다.

이 신디케이트 론 제공에는 뱅크오브 아메리카·후지은행·다이와은행·노린추킨은행·한국제일은행 등이 참가한다.

〈日 本〉

일본 히타치製作所는 엔高出 대

응, 重電부문의 해외생산체제를 강화한다고 「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이의 일환으로 히타치는 인도네시아에 현지기업과 합작사를 설립, 전력설비의 일종인 변전기기를 생산, 동남아시아 각국에 공급하는 한편 일본으로도 순수입할 예정이다.

새 합작사는 자카르타 교외의 인스트자카르타공업단지에 공장을 건설, 오는 11월부터 차단기 및 배전반 등의 변전기기를 생산하게 된다.

히타치는 현재 중국과 필리핀에서 수력발전용 水車와 발전용 보일러 등을 생산하고 있다.

〈國 內〉

통상산업부는 기술획득과 기술기반 조성을 금년도 산업기술 정책의 양대 목표로 설정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1천8백88억원, 공업발전기금 1천6백65억원,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95억원 등 각종 기술개발사업에 총 4천6백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말 제정된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96~2000년)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日 本〉

일본의 마키다는 멕시코와 東歐에 전동공구의 판매자회사를 설립했다. 멕시코와 폴란드에는 이미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체크에는 4월중순까지 설립기로 했다.

멕시코의 판매회사는 '마키다 USA'가 전액 출자하여 작년 11월에 설립, 금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는데 초년도 매출목표는 약 4억엔이다.

〈베트남〉

베트남은 오는 2000년까지 전력 생산을 현재보다 2배이상 늘릴 방침이며, 올해 2개의 발전소를 새로 가동할 계획으로 베트남의 지난해 발전 총량은 20년 전보다 거의 5배나 늘어난 1백20억kW/h로 2000년까지는 2백60억~2백90억kW/h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베트남 중부 고원 지대인 알리와 송헌 지방에 건설중인 수력발전소 이외에 호치민시 근교에 있는 4백72메가W짜리 수력발전소와 6백메가W짜리 화력발전소가 올해안에 가동에 들어가며, 이밖에 북부 베트남에 있는 파라이 화력발전소는 현재의 발전 용량 4백메가W를 6백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國內〉

국내 중전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産·學·研·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전기 정책연구회」가 발족됐다. 이번 연구회는 전기 관련 산·학·연·관 대표 20여명으로 구성 됐으며, 연구내용은 ▲국내의 일반현황 및 동향조사, 분석 ▲기술수준조사, 분석 및 핵심

기술 도출 ▲대의경쟁력파악 및 경쟁력제고 방안 제시 ▲중전기산업의 중장기수립 등이다.

〈日 本〉

일본전기공업회는 '95년도 중전기 생산전망을 발표했다. 품목별 전망은 발전용 원동기 735,610백만엔, 회전전기기계 1,078,800백만엔, 정기전기기계 744,290백만엔, 개폐제어장치 1,688,460백만엔 등으로 전년대비 1.0%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國 內〉

3월 중전기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통상산업부는 중전기 제조업체가 한국전력에 제품을 납품할때 하자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던 성능보장 유보금을 면제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토록 조치했다.

〈日 本〉

일본의 미쓰비시전기는 해외에서 수주한 전력기계의 생산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자재의 해외조달 비율을 종래의 30% 정도에서 금년도에는 50% 정도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한편 중전각사가 해외자재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경쟁이 치열한 납품 제품은 해외에서 수주 납품하는 전력플랜트용 기계의 자재이다.

〈國 內〉

통상산업부는 최근 행정 규제완

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전기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산 신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하고 주요 수요처인 한국전력의 납품검사제도를 개선기로 했다.

〈日 本〉

일본의 수미토모상사는 필리핀에서 地熱발전사업에 착수 한다.

美 중전메이커 캘리포니아 엔너지사와 합작으로 전력회사를 설립기로 했다. 발전능력 23만1천킬로와트의 지열발전소를 '97년까지 레이티島에 건설하여 BOT(건설 운영 양도)방식으로 사업을 운영기로 했다. 총사업비 2억8천3백만 달러 가운데 2억달러를 미정부계 금융기관에서 조달기로 합의, 용자계약을 체결했으며, 해저전력케이블을 통해 마닐라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루손島와 리조트地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세부島에 전력이 공급될 예정이다.

95. 4월

〈日 本〉

일본의 히타치製作所는 인도네시아에 變電所用 기기들을 생산할 합작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5백만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되는 「히타치 파워 시스템스 인도네시아社」는 오는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히타치社는 이 합작기업에서 同社가 70%의 지분을 갖고 인도네시아의 전기·화학그룹인 타르타마스 마주투미社가 20%, 인티 푸

트라모데른사가 10%를 소유할 것이며, 총 투자액이 10억엔에 이를 이 합작기업은 자카르타에 공장을 건설, 遮斷器, 配電盤, 避雷器 등의 부품을 생산한다.

이 합작기업은 생산품의 20%를 일본으로 선적하고 나머지는 인근 국가에 판매할 예정이며 97회계년도('97년 4월~'98년 3월)중 매출액은 3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世界〉

세계 최대의 민간가스회사 브리티시 가스(BG)가 필리핀에 화력 발전소를 건설한다. 오는 '98년 가동을 목표로 마닐라 남쪽 바탄기스에 4백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건설, 앞으로 6년동안 이 지역에 10억달러에서 15억달러를 투자, 화력발전소를 증설키로 했다.

BG는 작년 11월 필리핀기업 퍼스트 필리핀 홀딩스사(FPHC)와 합작회사 퍼스트 가스 홀딩스사를 설립, 액화천연가스의 육상 파이프 라인망 정비에 나서고 있다.

〈國內〉

통상산업부는 올해 162개 지방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코자 '95년도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은 수출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과 수출기반이 취약해 수출을 못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을 기초 단계부터 2년 동안 육성해 수출기업으로서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中國〉

중국은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자질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해 발전소 건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공업부에 따르면 매년 생산시설의 3분의 1이 전력부족으로 인해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당수의 공장들이 단전에 대비해 비상 발전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전력부 관계자들은 따라서 최우선 사업의 하나가 전력량의 급속한 확대라고 밝히고 올해 말까지 전력량을 1백만MW로 늘리는데 이어 '90년대 말까지는 발전량을 현재의 3분의 1 이상 확대할 것이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발행, 직접 투자 유치 등으로 해외자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루마니아〉

'90년에 시작된 通信시스템 현대화사업이 '92년부터 본격화되면서 늘기 시작한 루마니아의 절연전선 수입은 금액과 수량면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94년 수입이 전년대비 금액면에서는 100%, 수량면에서도 23% 증가해 근래들어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절연전선 관련사업이 '92년에서 '94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별로는 한국산이 '92년 1만4천弗에서 '94년 361만5천弗로 증가, 36%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수위에 올라 있고 그 뒤를 이탈리아(32%), 日本(17%)이 따

르고 있다.

〈國內〉

통상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중전기 제조업체, 학계, 단체, 임직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연구소, 진흥회, 전기조합 기초전력공학공동연구소가 공동으로 WTO 체제 출범에 능동 대처하고 21세기에 중전기기를 세계 일류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1세기를 향한 중전기 산업의 발전전략」 공청회를 개최했다.

〈日本〉

일본의 마부치모터는 중국의 大連市 교외에 소형모터의 새 조립공장을 건설, 연간 1억개로 약2천명의 종업원을 현지채용키로 했으며, 대련마부치를 부품의 공급기지로 전환, 인건비가 20~30% 싼 주변지역에 조립공공의 衛生工長群을 배치해 생산코스트를 한층 더 낮출 계획이다. 새공장은 대련 마부치가 있는 경제기술개발구 북방 약1백킬로 지점에 있는 瓦房店에 건설키로 했다.

〈대만〉

대만의 종합전기메이커인 士林전기는 대만의 2륜차메이커인 慶豊그룹과 공동으로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에 인접한 둔나이쑤에 2륜차電裝부품공장을 설립키로 했다.

생산품목은 起動모터·발전기·이그니션 코일 등으로 베트남에서 2륜차의 생산을 하고 있는 慶豊그룹에 납품키로 했다. 새공장의 투자액은 2백41만달러로 士林電機가 현지공장 주식 90.1%를 보유하기

로 했다.

〈유 럽〉

독일 최대 기업그룹인 다임러 벤츠와 重電회사 아시아 브라운 보베리는 양사의 철도차량사업을 통합, 새로이 절반출자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동구와 아시아 중동등 교통관련 인프라스트럭처의 정비를 추진하는 신흥시장에서의 수주 체제강화를 과제로 하고 있다.

〈日 本〉

일본의 수미토모전기공업은 이달부터 말레이시아의 자회사 '수미토모 일렉트릭 인터커넥터 프로젝트 말레이시아'(SEPM)에서 電子線照射電線의 생산을 시작키로 했다.

전자선조사전선은 내열성 내마모성 난연성등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절연전선에 전자선을 조사한 것인데 가전제품을 비롯 컴퓨터와 자동차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95. 5月

〈日 本〉

일본의 三菱電機는 전력관계기기의 조달코스트 절감을 겨냥해 미국과 대만 중국의 관련회사와 조달선으로 제품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

엔고에 따라 전력회사로부터 전력기기의 가격인하요청이 강력해짐에 따라 국내 시장중심의 전력관계기기 분야에서도 해외에서의

제품 조달을 확대하여 코스트 절감을 추진, 내외메이커와의 가격경쟁에 대응키로 했다.

동사는 이미 아시아 각국등에서 변압기등을 수입하고 있는 것을 비롯 미 웨스트링하우스에서는 코일의 일부를 구입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산업부흥공사(IRI)그룹이 중기회사인 안사르드는 칠레의 전력회사 에델노르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

발전플랜트는 에델노르의 메히요네스발전소내에 '98년 완성시킬 계획이다. 출력은 150메가와트로 1억5천만달러 상당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안사르드는 태국 등에서도 합작으로 발전 플랜트의 건설을 하청받아 해외 수주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日 本〉

일본의 미쓰이물산 도시바 이시카와하리마중공업등 3개사 연합이 중국에서 화력발전플랜트의 대형 수주에 성공했다.

발주 예상분을 포함, 60만킬로와트급 석탄화력발전설비 3기를 浙江省의 北侖火力발전소에 납품키로 했는데 수주액은 모두 5억달러 전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입찰은 작년 가을 세계은행의 파이낸스조건부 국제공개입찰로 실시되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독일 지멘스등도 응찰했다.

〈國 內〉

LG화학은 대형몰드변압기에 사용되는 초고압 에폭시 절연재의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대형몰드변압기용 에폭시 절연재는 변압기용 에폭시 절연재로 세계 두번째로 상품화한 것으로 탁월한 내열압성, 내열성과 충격에 강하며 이 제품 개발로 연간 1백억엔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獨 逸〉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한국 경제정보원에 따르면 독일의 한 기업이 북한과의 발전기 수출을 위해 협상중으로 현재 북한에는 에너지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공장이 많아 독일로부터 발전기 도입을 적극 추진중으로 보고 있다.

〈國 內〉

통상산업부는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업발전법의 적용 범위에 환경설비제조 관련업, 기계장비 임대업,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영상산업, 특정폐기물처리 및 폐수처리업 등 6개업종을 추가했다.

〈日 本〉

일본의 도호크(東北)전력은 중국등 아시아 4개국에 자재조달사절단을 파견키로 했다. 코스트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유망한 해외 제품을 발굴하려는 것으로 이번 자재조달 사절단은 토목 부문이 한국·태국 2개국, 공무 부문이 중국·대만 2개국을 각각 방문키로 했다. 건설용 철골과 강재 제품, 수력발전용 기기, 전력용 변압기등 기자재를 중심으로 발굴

조사했다.

〈泰 國〉

태국 국영전화공사는 태국 및 인도의 민간기업과 합작으로 인도 정부가 실시하는 통신인프라정비 계획에 응찰키로 했다.

동사가 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인도 각주의 전화회선을 증설하여 운영하는 민영화 프로젝트로 인도 정부는 국내 전화회선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계 전화 통신국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간 전화서비스를 분할 민영화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인도정부는 가까운 시일안에 국제입찰을 실시, 전화회선시설의 라이선스를 부여할 기업그룹을 선정키로 했다.

〈國 內〉

국내 발전설비 보유량이 3천만 kW를 돌파했다.

통상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65만kW급 무주양수발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국내 발전설비 보유량이 종전의 2천35만kW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국내 발전설비 보유량이 3천만kW를 넘어섬에 따라 한국은 세계 19위의 전력설비 보유국이 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발전설비 보유량은 지난 45년 해방당시(20만kW)에 비해 1백52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된 61년(37만kW)과 비교하면 8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정부는 '95/'96 회계연도('95년 7월 1일~'96년 6월 30

일)부터 발전기 수입관세를 현행 45%에서 75%로 인상하고, 국내업체가 발전부문에 투자시 그동안 허용해 오던 관련 기계류 등에 대한 면세수입 등의 인센티브 조치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부도정부의 발전부문 집중 육성정책으로 최근 국내업체의 과잉 투자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취해진 것으로 외국 투자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94년도 우리나라의 對파키스탄 발전기 수출은 6만1천弗로 전년비 96.7%가 감소한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는데 한층 수출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國 內〉

통상산업부는 기술력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유관기술지도기관이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등 집중지원함으로써 조속히 일류기술수준까지 육성하고 그 성과가 동종업계에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유망선진기술기업육성방안을 개정공고(통상산업부 공고 제1995-46호, '95. 4. 18)했다.

〈日 本〉

일본의 마키다는 멕시코와 東歐에 전동공구의 판매자회사를 설립했다. 멕시코와 폴란드에는 이미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체크에는 4월중순까지 설립키로 했다.

멕시코의 판매회사는 '마키다

멕시코'로 마키다의 미국판매자회사 '마키다 USA'가 전액출자하여 작년 11월에 설립, 초년도 매출목표는 약 4억엔이다.

〈美 國〉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社는 차세대형 가스용 화력발전기를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발전기는 현행 모델인 F형보다 더 개량된 G형 및 H형 터빈으로 G형은 열재이용 운전시 출력이 35만kW 및 42만kW 2기종으로 에너지효율은 58%이고 H형은 출력 40만kW 및 48만kW 2기종으로 에너지효율은 60%에 달한다. 또한 터빈에 들어가는 가스의 온도를 높여 에너지효율을 60% 향상시켰으며, 냉각기의 효율적 이용으로 배기증의 질소산화물 증가 및 터빈소재의 내구성감소 등 고출력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켰다.

〈日 本〉

일본의 수미토모상사는 인도네시아의 20만킬로와트 증기터빈발전설비를 총 2억2천만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발전설비는 일본제 외에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미국제와 오스트리아제를 채용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비용 가운데 2억2백만달러를 제품공급 3개국의 수출입 은행에서 바이어즈 크레디트 형식으로 받은 협조융자로 충당키로 했다. 발전설비를 납품하는 곳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가 운영하는 중부 자와주 탄바크로록 가스 화력발전소이다.